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낸 우리 가락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 펴낸 김준호씨

‘문화의 시대’라는 요즘도 사각지대에서 홀대를 면치 못하던 우리 가락이 입자를 제대로 만났다. TV를 통해 이미 ‘뒹고’, 이번에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이론과실천)는 책까지 펴낸 김준호씨(35, 민속학자)가 바로 그다.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며, 가슴으로 느낀 우리 민중들의 노래를 소박하고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 놓았다.

“고등학교때부터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공부하고 싶은 걸 가르치지 않았습다.”

부산대학교 국문과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직 살아 있는 우리 문화를 채집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구조화되어 있기보다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른바 ‘잡동사니 학문’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음식문화에서 소리가 나오고, 문화가 나온다. 또 그 문화는 다시 사람들의 삶을 규정한다.

“뒹든지 우려먹고 익혀먹고 삭혀먹는 음식문화는 노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경새재 웬 고개뇨’를 ‘무훈경 새해재해는 웬 고희호개해뇨’로 불러야 제맛이 나는 이유는 삭은 맛을 내는 기음(氣音) 때문입니다.”

또 비벼먹고 써서 먹듯 일과 놀이가 뒤섞여 있어서 우리 노래의 기본들은 노동요다. 상여소리, 사랑가, 자장가도 노동요풍으로 모두 첫 박자가 센 박이고, 4박자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의 총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세계화와 극단적인 국수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문화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는 책에서 남원의 횡단보도 신호음이 ‘진도 아리랑’으로 바뀐 예를 들며, 군인들의 행진도 옛날 취타대(吹打隊)의 느린 음악에 맞춰 하자고 제안한다. 많은 부분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이번 책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읽혔으면 하는 것도, 여기저기서 요청해 오는 강연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면 해서다. 그의 끊임없는 공부와 열정적인 힘은 평생 반려자인 손심씨(35)의 이해와 격려에서 나온다. 공부나 하며 처박혀 있던 그를 만인 앞에 끌어낸 것도 손씨의 힘이고 강연마다 고수로, 한국무용가로 함께 해 그의 강연을 볼 만하게 만드는 것도 그이다.

“공부할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요에 나오는 ‘앗싸’가 우리 추임새 ‘얼썬’에서 나왔지만 일본에서 왜곡되어 다시 왔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면 속이 상합니다. 우리 것이 어디서, 어떻게 왜곡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현주 기자



행복한 사회의 밑거름

《우리집 행복지수 높이기》 펴낸 정송씨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사회의 밑거름이다.”

이 소박하고 상투적이기까지 한 명제는 정송(43, 한국자녀교육상담소) 소장의 신념이다. ‘좋은부모되기운동본부 이사’ ‘아버지모임 전국연합 공동대표’ 등 줄잡아 20여군데 관련단체 및 모임에 이름을 얹어두고 이 신념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일에 동분서주한 덕분에 정송씨는 95년 ‘올해의 좋은 아버지상’ ‘자랑스런 시민상’ ‘자랑스런 가족상’을 수상했고 97년에는 ‘건전가정운동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때로 주변 남성들에게 “남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감수해가며 ‘좋은 아버지’ ‘민주적 남편’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그의 실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최근 그가 펴낸 《우리집 행복지수 높이기》(한뎛)는 그 궁극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이 책에는 올해 중3인 영빈이와 한 살 터울의 경빈이, 이제 4살된 막동이 은빈이, 유치원을 경영하는 아내 등 정송 소장의 다섯 가족이 꾸려가는 가정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집안일을 돕는 것은 기본,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강연장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는 정소장의 태도는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다가도 집에만 들어가면 ‘극보수’로 돌아서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모습에 비해보면 가히 ‘혁명적’이다.

스스로 ‘선진국형’임을 자처하는 정소장의 태도는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가령, 아이가 오락실 출입에 재미를 붙일 때, 아이와 함께 오락실에 가서 아이 스스로 오락의 단순반복성에 싫증을 내도록 한 것은 좋은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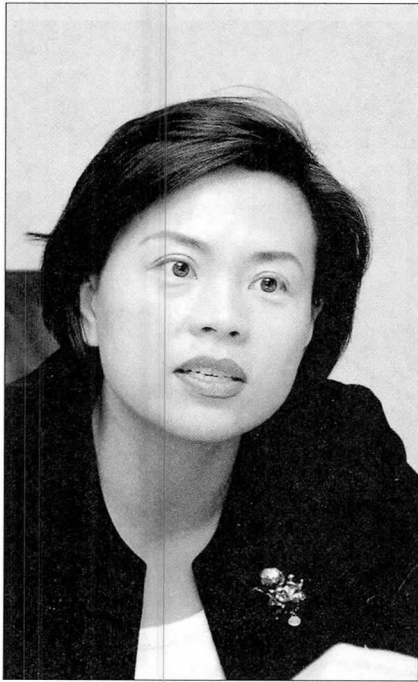
“아이들의 가치관과 정신적 능력은 부모들의 그것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돈이 없는 부모 밑에서도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건강한 정신을 가진 자녀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핑계삼아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의 인생에 전적으로 개입하려는 태도 모두를 비판하는 정소장은 부모 스스로 건강한 가치관, 성숙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생활할 때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는 정소장 자신의 일상생활 외에도,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들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된다.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생활을 위한 대중요법을 담은 처방전인 셈이다.

남편 혹은 아내가 뒹거나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 이밖에 도통 ‘살 맛이 없는’ 증세를 지닌 독자들을 위해 정소장이 내린 처방 다섯가지. ‘낙천론자가 되자’ ‘감사하자’ ‘웃자’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자’ ‘나눠주자’. — 박남정 기자





대중문화의 꽃이 되는 길

《모델》 펴낸 이경남씨

‘대중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모델은 육체의 아름다움과 꿈틀거리는 인간의 욕망을 이미지로 표현한다. 자본주의 상품미학의 첨단에서 육체미학을 구현하는 지점에 그들이 서 있다. 인간의 ‘끼’와 ‘개성’이 현금거래되는 대중문화의 현상이 그들의 무대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모델에 대한 사회적 무지와 편견도 여전하다.

“모델은 직업이다.” 《모델》(윤경)을 펴낸 이경남씨(38)의 핵심 주제가 요약된 말이다. 한편 지당하면서도 모델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주장이다. 10년 넘게 모델과 클라이언트 사이를 조정하는 모델 에이전시 ‘모델파크’를 운영해온 현장경험을 모아 모델과 모델계의 모든 것을 공개했다.

“아직까지도 모델 자신이나 모델산업 관계자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델을 꿈꾸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체계적인 자료나 책이 없었지요.”

대학에서 복식사회심리학을 배운 그녀가 모델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우연이었다. 의상 코디네이터로서 방송계·광고계에 어드바이스 역할을 맡게 된 것이 모델계의 대모로까지 자신을 이끈 계기가 되었다.

전문모델인으로 이르기 위한 수련과정에 초점을 둔 이 책에는 모델세계에 대한 소개, 모델이 되는 방법, 모델 에이전시의 역할과 활용, 성공한 모델이 지녀야 할 자세 등이 다양한 사례와 간결한 문체로 해설되어 있다.

“대부분의 모델들은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이들이 잠재적인 능력을 발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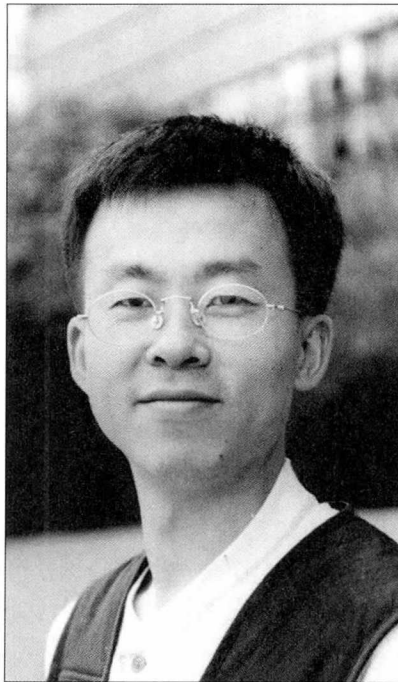
자신의 작은 역할을 훌륭히 잘 해나가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출세한 모델들이 자신의 어렵고 초라했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 할 때 가장 가슴아팠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성공한 모델들은 삶에 대한 열정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상에 섰다. 자신의 무대에서 꿈꾸고 무작정 노력하고 배웠던 톱 모델 진희경을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한다.

성공하는 모델을 꿈꾸는 이들에게 주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자기 육체에 대한 관리와 자기 생활에 대한 절제는 기본이다. 거기에 독서와 연구·영화 관람을 통해 문화적인 소양을 쌓고 광고계·디자인계·방송계 등 관련 산업의 최신 동향이나 정보에 민감한 촉수를 가질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의와 겸손에 바탕을 둔 인간적인 성숙함이다.

“이 책으로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모든 모델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드리는 첫번째 사랑의 표시를 했으니, 이제부터는 모델 전략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져왔던 광고에 대한 비교 연구나 재미 있는 모델계 에피소드를 모아서 좀더 아끼아끼하고 정감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 박천홍 기자



통일의 수레바퀴는 남북한 주민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어요?》 펴낸 장영철씨

망명자 장영철(31)씨는 최근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어요?》(사회평론)라는 책을 펴냈다. ‘당신들’은 탈북자들을 호들갑스럽게 반기는가 하면 난민 취급하며 무시하려 드는 남한사람들. 북한을 적대세력으로 여기는 뿌리깊은 레드콤플렉스에 대해 그가 던지는 문제제기다. 그는 ‘귀순’이라는 단어부터 반론을 제기한다.

“‘귀순’은 정치적 ‘망명’이 아닌 무조건적 항복과 순종을 종용하는 단어입니다. 탈북자들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굴종을 강요하는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의 말은 앞으로 더 많이 접하게 될지도 모르는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태도를 지적하는 의미있는 발언이다. 남한사회에 환상을 가지고 월남한 망명자들의 생활은 천차만별이다. 항쟁열씨처럼 특별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정착금을 사기당한 사람, 취업이 안되어 좌절하는 사람, 술집아가씨의 ‘가방모찌’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장영철씨는 이곳의 생활에 무리없이 적응한 편. 10여년 동안 이곳 사회문화에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김책공업종합대학과 동독 프라이베르그 아카데미를 거친 그는 이곳에서 다시 학업을 시작,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포스코에 입사하여 평범한 회사원으로 재직했다. 대학 재학시절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돈을 날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회사를 작파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나섰다.

“다른 샐러리맨이 그렇듯 일상에서 탈출해 새로운 모험을 하려 해요. 그것이 뭐가 이상하죠?”

자유인 장영철은 책에서 드러나듯 북한의 신세대다. 억압적인 체제와 권위적인 틀에 저항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남북의 젊은 세대는 서로 일맥상통하는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망명을 결심한 계기도, 통일에 관한 생각도 ‘개인’에서 출발한다.

“남한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지만 통일에 대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소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통일관은 경제력이 우월한 남한의 흡수통일. 통일후 변화에 대한 대처와 통일의 주체인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통일의 수레바퀴 한쪽은 북한 주민의 몫이 아닙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남한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선 교류가 필요합니다.”

장영철씨는 함께 망명한 친구 전철우씨와 함께 10월초에 일산 자유로변에 냉면집을 개업할 예정이다. 이문열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그는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어한다. 그는 이 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 마정미 기자

